

언론 사람

02
2020
VOL.236



04 인터뷰 人+人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06 Newmedia of the World
대선 후보 지지선언과
저널리즘의 투명성

08 세상사는 法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신의 은총으로'

04 인터뷰 人+人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06 Newmedia of the World
대선 후보 지지선언과
저널리즘의 투명성

08 세상사는 法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

10 돌보기
마르지 않는 샘

12 이달의 시
여행-길에서 '길'을 찾는 발견의 시간

14 단어의 증력
이르다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성직자의 아동성범죄를
고발한 피해자들,
'신의 은총으로'

18 NEWS
위원 동정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20년 2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Jefunne <Close snowflakes up>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
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
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
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
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
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곶밭을 걸으며

추위를 이겨낸 과실의 맛은
시련을 이겨낸 삶과 닮았습니다.
겨우내 냉기를 머금은 과실의 시원하고 상큼한 맛처럼,
얽히고설킨 시련을 묵묵히 이겨낸다면
우리네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 때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에서 플라스틱으로 배가 차 날지 못해 폐사한 알바트로스가 미래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는 기후 변화의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아닌 시급한 당면 과제를 웅변한다. 그러나 경제논리에, 정치상황에 밀린 환경문제는 우리의 관심 저 바깥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1년 중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지금, 언론사람은 녹색연합 윤정숙 공동대표를 만나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았다.

Q 2019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툰베리 연설의 사회적 의미를 말씀해주신다면?

A 짧은 활동기간에도 10대 환경운동가가 이런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기후 문제가 그만큼 세계적인 이슈라는 반증입니다. 기후 난민이 생기고,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보면서 심각성을 체감하게 된 거죠. 툰베리의 주장은 청소년들에게 기후 변화는 생존 이슈라는 겁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미래에 겪을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기성세대가 아닌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사회참여에 앞장서는 배우 제인 폰다는 지구가 불타고 있다는 의미로 빨간 코트를 입고 작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Fire Drill Fridays> 시위에 참여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하루 동안 수감되었어요. 석방 인터뷰에서 툰베리의 놀라운 활동을 보면서 매주 시위에 동참하겠다고 했죠. 실제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금요일마다 참여자들이 시위 참



그레타 툰베리는 역대 최연소로 타임지 '올해의 인물(2019)'로도 선정되었다.

석 후 수감됐어요. 저는 이 시위가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기후 변화 문제는 청소년과 기성세대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Q 툰베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는 대신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이후 많은 학생이 동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활동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A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9월 국제기후파업

주간에 많은 준비를 했어요.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청소년과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에서 400만 명이 참여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5천 명이 참여했죠. 작년 10월 세계재생에너지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김도연 학생 환경운동가가 '국제사회와 기성세대는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함께 바로 지금 개선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죠. 우리 아이들도 20년 후의 삶과 생존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Q 유럽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프랑스는 2023년, 영국은 2025년, 이탈리아·덴마크·캐나다·이스라엘은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셧다운할 예정입니다. 독일은 2038년까지 탈원전까지 하겠다고 선언했죠.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금융권도 원전이나 석탄 화력발전보다 재생에너지의 수익성이 더 높

Q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언론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기후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는 'Silence 정부·Silence 언론·Silence 정치'예요. 정말 무관심하죠. 그에 반해 타임은 10대의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뽑았고, BBC도 툰베리를 많이 조명합니다. 미국 CNN도 한 시간짜리 토론 프로그램에 툰베리를 초청했어요. 뉴욕타임스도 기후 변화가 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기후 변화 이슈를 상업적이거나 정치 이데올로기로 다루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대신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와 '지구가열(Global Heating)'로 표현을 바꾼다고 했어요.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언어로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 덕분에 언론사 최초로 친환경 기업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 현상에 어떤 비중을 두고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언론의 선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언론이 시대의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언론사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환경문제는 나이와 지역에 상관없이 인류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툰베리를 비꼬기도 했는데요.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과제를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이러한 노력에 대해 기성세대와 언론의 지지와 공감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WTO도

2013년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이

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

이 나빠져 연 4조 정도

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거라 예측했습니다. 해외

에서는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

하고 기후변화법도 마련하고 있습

니다. 독일은 기후 내각을 따로 만들었고요.

이러한 추세에서 OECD 국가 중 원전을 짓겠

다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린피스가 우리

나라 정책을 보면 놀랄 겁니다. 늦었지만 정부

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만들고 실현 가능한 탈

원전·탈석탄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Q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세력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A 변호사를 그만두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크리스 조던이 제작한 <알바트로스(Albatross)>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북태평양 미드웨이섬에 죽은 알바트로스가 많았는



데, 배를 열어보니 플라스틱 페트

병과 빨대가 가득 들어있었

어요. 몸이 무거워져 날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날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

지면서 서서히 죽어간 거

죠. 더 충격적인 것은 새들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알고 새

끼에게 먹이는 장면이었어요. 플라

스틱을 지금처럼 쓴다면 2050년이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합한 무게보다 플라스틱

쓰레기 무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이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UN에서 우리나라

에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저감계획

(Net-zero)을 세우라고 했어요. 준비 과정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른 나라에서는 그 고통을 겪으며 이행했거든

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가 확산

되지 않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지요.

대선 후보 지지선언과 저널리즘의 투명성

뉴욕타임스가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시작한 건 1860년의 일이다. 무려 160년이 된 전통이다. 절차, 영향력, 보도 방식 등이 변화하긴 했지만, 발표 행위 자체가 중단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창간 이래 단 2차례만 생략했다는 자랑스러운 언설만이 그들의 입과 지면을 통해 소개될 뿐이었다.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은 불편부당을 생명으로 삼는 저널리즘 행위자들에게 모순적 행태다. 국내 적잖은 언론사들이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검토했지만, 지속적인 전통으로 굳힌 곳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기도 했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는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오랜 관행과 전통, 정파성으로 점철된 한국 언론의 역사 속에서 이를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뉴욕타임스는 무려 160년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이어오고 있다. 심지어 1960년 이후 일관되게 민주당 후보만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당파성 논란에 충분히 휩싸일 만도 했지만.

2020년 1월 19일, 뉴욕타임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였다. 하지만 이전과는 절차와 방식이 너무 달랐다. 우선 편집국과 분리된 논설위원실(Editorial Board)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인터뷰한 모든 내용을 텍스트와 영상으로 공개했다. 심지어 신문 지면이 아닌 훌루(HULU)와 같은 방송을 통해 과정과 결과를 낱말이 설명했다. 발췌문에 담기지 않았던 뒷이야기도 다양한 형태로 내보내고 있다. 그야말로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다.

뉴욕타임스의 지지 선언 절차는 곧잘 교황의 선출 절차인 콘클라베(Conclave)에 비교됐다. 워싱턴포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엄숙하고 비밀스러우며 대중과 거리가 먼 그런 특성 때문이었다.

그만큼 대선 후보 지지 선언 절차는 그들에게 특별하고 조심스러운 고귀한 그들만의 의례였다. 내부에서 어떤 토론이 이뤄지는지, 어떤 기준이 제안되고 수용되는지, 최종 선정까지 어떠한 의견들이 교환됐는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그것이 당연했고 전통이었으며 관행이었다. 지금 그 관행에 균열이 만들어졌고 변곡점이 찍힌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뉴욕타임스에 대한 신뢰 수준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그야말로 '적'으로 인식될 정도다.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신뢰도 1위를 기록하는 것도 아니다. ABC, NBC 등 방송을 지나고 나서야 신뢰하는 언론사에 이름이 오를 정도다. 최근 들어서는 여느 언론들처럼 신뢰의 하락도 경험했다. 그럼에도 뉴욕타임스는 후보 지지 선언을 중단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판 콘클라베의 '절차 공개' 선언은 '신뢰의 위기'에 처한 저널리즘에 있어 투명성이 왜 대안적 윤리 규범으로 유력한

지를 보여준다. 그간 저널리즘은 과학적 방법론의 도구상자 안에서 보도 방법을 수혈받아 왔다. 사실과 의견의 분리라는 객관주의적 보도 방법도 실은 실증주의라는 과학적 방법론의 일부를 차용해 내재화한 결과다. 수많은 프로파간다 주체들과 저널리즘 행위자를 차별화하기 위해 우연적으로 혹은 불가피하게 수용한 윤리이자 방법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성의 가치 규범은 역사적 도전 앞에서 수차례 부침을 겪어왔다. 탈진실은 강고한 객관성의 윤리가 더 이상 신뢰를 지탱하는 데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결정적 신호이기도 했다. 엄격한 객관주의적 방법론으로 보도를 제공하더라도 수용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역설적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저널리즘은 투명성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이다. 투명성은 이 과정에서 도출되고 재해석되는 대안적 틀이라는 측면에서 수많은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이미 과학계는 실험의 재현성만큼이나 중요한 윤리적 기준과 방법론으로 투명성을 강조해왔다. 다수의 격조 높은 과학 학술지들은 실험 방법과 실험 데이터를 더 이상 원고 분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공학 논문의 경우 실험에 사용된 반대편 규모의 데이터를 링크와 함께 공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검증의 문도 활짝 열어 두었다. 실험의 독립성을 중요치 않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니지만, 투명성의 강화로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뉴욕타임스판 콘클라베의 투명성 강화는 저널리즘과 과학이 다시 대화와 교류를 개시한 흔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항상 과학이길 원했던 저널리즘은 과거처럼 과학의 방법과 윤리를 재수혈함으로써 다시금 과학의 반열 위에 서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뉴욕타임스의 지지 선언 투명성 강화가 신뢰의 회복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트럼프에서 시작된 허위조작정보가 횡행하고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할 정도로 정치적 불신이 팽배한 역사적 시점에서 저널리즘 투명성이 갈라진 진영 간의 대화를 다시금 복원시킬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저널리즘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된다면, 투명성이 보편의 저널리즘 문화로 귀착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널리즘 생태계에서도 뉴욕타임스 식의 파격적인 투명성은 신뢰 회복의 방법으로써 충분히 검토할 만한 대상이다.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이다. 이는 RTV(시민방송) 채널에서 방송되었는데, RTV는 시청자가 제작, 기획 등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방송 콘텐츠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퍼블릭액세스 채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백년전쟁>이 구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과 객관성, 사자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RTV는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제재를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하

였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¹⁾

다수의견은 객관성, 공정성을 위반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 매체와 채널,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주파수를 무상으로 지정받아 사용함에 따라 시청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접근가능한 방송매체와 채널(ex. 지상파)과 시청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가를 지불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방송매체나 채널(ex.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이 국민 정서,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러한 면을 감안해서, 후자 매체나 채널을 심사할 때는 객관성, 공정성 기준을 완화해서 살펴야 한다고 봤

다. 또한 뉴스인지, 다큐멘터리인지, 오락프로인지에 따라서도 각각 차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뉴스와 같은 보도 프로그램이 사회적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직접적이므로, 다큐멘터리나 오락 프로그램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하게 요구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수의견 기준에 따르면 <백년전쟁>은 접근 가능성이 높은 지상파 방송도 아니고(RTV가 안 나오는 집들도 있을 것이고, 채널에 있더라도 채널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는 경우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시청자가 제작했으며, 보도 프로그램도 아니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공정성, 객관성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하여, <백년전쟁>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던 다큐멘터리는 점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봤다.

여기에 대해 반대의견은 여전히 방송은 기술적, 경제적 한계로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보유하고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볼 수 없고, 방송매체나 채널, 프로그램별로 처분의 심사 기준을 달리하자는 다수의견은 결국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용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행정 법치주의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방송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방송은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방송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면 스스로 제도 내 방송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매체를 선택하여 활동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하면서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공정성의 관점에 비추어보면, <백년전쟁>은 '다양한 관점의 소개', 혹은 양보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한 쪽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방송이 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보건대, 결국 방송의 영향력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

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방송이 주파수라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통신과 구분하고, 방송에 대해 공공성의 지위를 부여해 왔다. 물론 이번 다수의견이 방송이 갖는 공적 책임을 아예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채널에서, 누가 제작했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공공성과 객관성의 기준을 달리 보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재형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미디어 융합이 가속화되어 가용채널이 증가하고 방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파자원의 희소성 논리는 더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졌고, (중략)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수의 지상파 방송을 규율하기 위해 도입한 방송심의제도를 모든 방송매체에 무분별하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아마도 <백년전쟁>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을 음미하고, 해당 관점을 받아들일지, 비판할지는 개인의 몫이고 선택이다. 선거 방송이라든가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라면 좀 더 정교하고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될 것이지만, 역사 다큐멘터리는 사료와 사관의 선택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이 감안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법원은 보충의견을 통하여 '민주공화국에서는 구성원인 한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무게가 공화국 전체의 무게와 맞먹는다. 공화국 전체의 안전이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한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요체이다. (중략) 방송이 공동체의 화해와 통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를 전체적인 방향으로 인도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략) 과거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원적으로 조망하는 일은 단일한 역사 인식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하였다.

<백년전쟁>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시각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또 공정성 기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 번쯤 볼만하다.

1) 13명의 대법관 중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이 6명일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 판결문도 어마어마하게 길다. 그렇지만 판결문은 상당히 재미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은 이 지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마르지 않는 샘

<관서유감 觀書有感>

책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송(宋) 주희(朱熹, 1130-1200)

半畝方塘一鑑開*, 반무방당일감개

조그맣고 네모난 연못이 거울처럼 펼쳐져 있어,

天光雲影共徘徊. 천광운영공배회

하늘의 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오고 가네.

問渠那得清如許, 묻거나득청여허

어찌 이렇게 맑을 수 있는지 그에게 물으니,

爲有源頭活水來**, 위유원두활수래

샘이 있어서 흐르는 물이 내려오기 때문이라네.

잘 알려져 있듯이 주자는 공자 이후의 유학(儒學)을 집대성하여 새로운 철학 체계인 신유학(新儒學)을 완성한 학자다. 이 시는 주자가 만년에 지은 것으로, 평생 동안 지니고 있었던 학문에 대한 마음가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연못은 흐르는 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맑음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물이 고여 있으면 혼탁해지고 그러다가 썩는다. 하늘의 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오고 가는 모습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은 흐르는 물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의식도 고여 있지 않아야 혼탁해지지 않는다. 자신의 주관과 편견에 갇혀 있으면 고인 물처럼 혼탁해져서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능하다. 주관과 편견을 극복하고 맑은 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흐르는 물의 지속적인 공급, 즉 독서임을 시의 제목에서 먼저 밝히고 있다. 독서를 통해 사람의 의식이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상태를 벗어나, 맑고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공자(孔子)는 이미 물을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다. <논어 論語> 용야(雍也)편에서,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知者樂水).”라고 했다. 모든 존재는 자신과 비슷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유유상종



* 반무(半畝): 50평. 1무(畝)가 100평이니, '반무(半畝)'의 넓이는 연못치고는 작은 규모이다.

일감(一鑑): 하나의 거울. 명사구가 뒤의 동사 '개(開)'를 수식하는 부사구로 활용되었다.

** 원두(源頭): 물의 발원지, 즉 샘이다.

활수(活水): 흐르는 물. 고인 물은 '사수(死水)'라고 한다.

(類類相從)한다. 물은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 물이 왜 지혜로운가? 이에 대해 주자는 <논어집주(論語集註)>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혜로운 자는 사리에 통달하여 두루 흐르고
막힘이 없으니, 물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물을 좋아한다. (知者, 達於事理, 而周流無滯,
有似於水. 故樂水.)”

물은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에 맞는 모습과 자세로 적응한다. 그래서 두루 흐를 수 있다. 또 그에 맞게 변화하여 나아간다. 그래서 막히지 않는다. 두루 흘러 미세한 곳까지 이르고 막히지 않아 혼탁해지지 않는다. 물이 지혜의 상징인 이유다.

흐르는 물이 계속 공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장의,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

다. 독서를 통해 공부를 쌓아나가는 것이 사람에게서 마르지 않는 샘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 이치를 맹자(孟子)는 알기 쉬운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근원이 있는 샘은 쉼 없이 흘러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구덩이를 다 채운 뒤에 전진하여 큰 바다에 이른다. …
만일 근원이 없다면 7, 8월 사이에 빗물이 모여 도랑이
모두 가득해지지만, 그것이 마르는 것은 서서도 기다릴
수 있다. (原泉混混, 不捨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
苟爲無本, 七八月之間雨集, 溝澮皆盈, 其涸也, 可立而待也.)”
<맹자(孟子)>·이루하(離婁下)

마르지 않는 근원이 있기 때문에 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쉼 없이 흐를 수 있고, 그런 근원이 없다면 비가 올 때 잠시 고였다가 바로 말라버린다는 말이다. 깊은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 흐르는 물과 도랑에 잠시 고였다가 말라버리는 물을 예로 들어, 공부를 쌓아나가기 위한 당위를 역설하고 있다. 요컨대 나의 맑은 사유와 이성으로 현상을 밝게 비추고자 한다면 깊은 근원에서 흐르는 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관서유감>은 위에서 살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자연 현상의 비유를 통해 시로 형상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 시와 관련된 장소가 여러 곳 있는데, 방문했을 때 거기에 얽힌 사연과 유래를 알고 그 의미를 돌아본다면 훨씬 깊이 있고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이름난 두 군데를 예로 든다.

하나는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있는 호수인 일감호(一鑑湖)다. 이 호수는 건국대학교가 서울캠퍼스를 짓기 시작한 195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자가 읊은 조그만 연못에 비하면 훨씬 큰 규모지만, 어쨌든 그 이름의 유래와 의미를 안다면 학생들이 호수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다. <관서유감> 첫 구절에 나오는 ‘일감(一鑑)’으로 이 호수의 이름을 정한 이의 안목이 뛰어나다.

또 하나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선교장(船橋莊) 초입에서 만나는 활래정(活來亭)이다. 선교장은 17세기 초 효령대군의 11대손인 이내번(李乃蕃)이 지었고, 활래정은 한참 뒤인 1816년에 이후(李廔)가 세웠다고 한다. 이 역시 <관서유감> 마지막 구절의 ‘활수래(活水來)’에서 차용하여 지은 이름이다. 이 정자에 앉아 차 한 잔 하면서 <관서유감>의 의경(意境)을 함께 음미한다면 그 운치가 어떻겠는가.



여행-길에서 '길'을 찾는 발견의 시간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창비, 2015)에서 인간에게 여행은 생존의 차원을 넘어선 문화이자 철학이고 수행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인간들은 끊임없이 떠납니다. 가보지 못했던 곳을 새롭게 만나기 위하여, 갔던 곳을 다시 보기 위하여 인간들은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떠남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확장하고, 그 길 위에서 자아와 세계의 진실을 만납니다. 이런 여행을 통하여 인간은 몰라보게 성장하고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그들이 떠났던 첫 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버스로, 비행기로, 기차로 어딘가를 향하여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떠나기 위하여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여행 가방을 꾸리는 일입니다.

여행 가방이란 한 사람 육신의 살림살이와 마음의 살림살이가 들어 있는 사적인 집과도 같으니까요.

이 시에서 문태준(1970~) 시인은 여행 가방의 목록을 사려 깊게 챙겨보는 것으로부터 시를 시작합니다. 이런 일 앞에서 시인은 낯선 듯이 자신의 놀라운 살림살이 목록을 발견합니다. 자신에겐 정말로 많은 '재산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가 들려주는 재산목록을 한 번 언급해 보기로 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아침, 한낮의 정오,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밤하늘의 조각달, 이런 자연사의 시공간들과 사물들이 우선 그의 재산목록으로 제시됩니다. 시인의 이런 재산목록은 이채롭습니다. 누구도 좀처럼 자신의 재산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연사의 표상들이 그의 재산목록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들보다 더 큰 재산목록도 달리 없습니다.

여행자의 노래

문태준

나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다네
 하루의 첫 걸음인 아침, 고갯마루인 정오, 저녁의 어둑어둑함, 외로운 조각달
 이별한 두 형제, 과일처럼 매달린 절망, 그럼에도 내일이라는 신(神)과 기도
 미열과 두통, 접착력이 좋은 생활, 그리고 여무는 해바라기
 나는 이 모든 것을 여행가방에 넣네
 나는 드리워진 커튼을 열어젖히고 반대편으로 가네
 이 모든 것과의 새로운 대화를 위해 이국(異國)으로 가네
 낮선 시간, 그 속의 갈림길
 그리고 넓은 해풍(海風)이 서 있는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창비, 2015)에서-

특히 여행자에게 이들은 가방의 소중한 곳에 담고 싶은 만한 재산 목록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여행의 길은 한층 우주적이고 초월적일 수 있으니까요.

시인은 다시 여행 가방에 넣을 재산목록들을 열거합니다. 이별한 두 형제, 과일처럼 매달린 절망, 내일이라는 신(神)과 기도, 미열과 두통, 접착력이 좋은 생활, 여무는 해바라기 등이 그 목록들입니다. 그는 이 현실적인 목록들을 소중하게 자신의 여행 가방에 꾸러 넣고자 합니다. 이들은 희망의 목록이기도 하고 또 아픔의 목록이기도 하지만 그는 이들을 품어 안고 여행길을 떠나려 합니다. 여행은 그에게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문화, 다른 방향과 다른 시각을 선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뒷부분에서 시인은 이런 여행 가방을 들고 '정반대 쪽'으로, '이국의 땅'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정반대 쪽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정

반대로 놓아볼 수 있는 곳이며, 이국이란 모든 것을 익숙한 자아가 아닌 타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콘텍스트가 텍스트를 바꾸고, 달라진 시간과 공간이 문제를 재해석하게 만들 듯이, 여행은 우리가 다른 콘텍스트 속으로 자발적인 이동을 하는 일이고, 다른 시공간 속으로 기꺼이 자리바꿈을 해보는 수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여행자의 노래'는 유연함과 너그러움,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 가벼움과 무집착의 초탈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서도, 여행으로부터 돌아오는 사람에게서도 다른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행이 지닌 이와 같은 속성 때문일 것입니다.

바야흐로 여행의 시대입니다. 여행을 통해 인간과 인간사가 차원변이를 이룩하는 인류사의 한 사건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르 다

모든 사물은 은유다.

-로버트 프로스트-

어린 시절, 너의 하루는 달리기로 시작되었다. 너보다 십이 분 일찍 태어난 쌍둥이 형을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며, 집에서 학교까지 달렸다.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빨강계 상기된 뺨으로 뛰어가는 형제를 바라보며, 부모님은 형제의 우애와 건강을 확인했다.

하지만 달리는 행위는 너의 일상인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경쟁이었다. A지점에서 시작하여 B지점에 이르기까지, 가장 짧은 거리를 선

택하고 장애물을 피하여 기록을 단축해야 했다. 너는 형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불행히도 네 형은 운동신경이 뛰어났다. 이긴 날보다 진 날이 많았고, 그런 날이면 너는 형이 타격연습을 할 수 있도록 몇 시간이고 공을 던져야 했다. 어깨와 팔이 마비될 때까지 공을 던지며, 너는 A에서 B에 이르는 가장 빠른 방법을 찾고 말겠다고 즐기치게 다짐했다.

창조의 근원은 무엇일까? 예술가를 움직이고 예술을 예술로 기능하게 하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동력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이천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창조의 근원은 은유'라고 대답했



다. 하지만 네 삶은 은유가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은유는 너의 사치였고, 창조는 너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네 형이 프로야구의 세계에 시끌벅적하게 입성했을 때, 너는 고만고만한 중소기업에 들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올렸다. 최단 거리와 최소 시간, 그리고 직진이 너의 좌우명이었다. 네가 최연소 이사라는 기록을 세웠을 때, 네 형은 연일 최다홈런의 기록을 경신하며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더 올라갈 곳 없는 피고용인의 자리가 시시해진 너는 회사를 뛰쳐 나와 사업을 시작했다.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욕망이 시너지를

일으켜 너를 높은 곳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다쳤지만, 그것이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자본주의의 세계였다.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으나 너는 매일 밤 그 대가를 치렀다. 끝없는 길을 끝없이 달려가는 꿈이었다. 그리고 너보다 한 발자국 앞에서 달려가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끝없이 쫓아야 했다.

‘내 마음은 호수요’에서 A는 ‘내 마음’이고 B는 ‘호수’이다. 마음은 어떻게 호수에 이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A와 B의 거리가 멀수록 은유는 훌륭해진다. 정재승 교수는 자신의 저서 <열두 발자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서로 연결하는 능력, 이것이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의 뇌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형상이라는 사실을 21세기 신경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알아냈다고 말한다.

네 형이 갑작스럽게 은퇴를 하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뉴스를 보았을 때, 너를 뒤흔 첫 번째 감정은 안도였다. 허탈이 그 다음으로 찾아왔고, 배신감과 절망이 뒤를 이었다. 이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되었고, 너는 악몽에 쫓기다 마침내 형을 찾아갔다. 덩수룩한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가려진 얼굴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가 너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미소였다. 너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너의 목소리는 통명스러웠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데서.”

“시를 쓰고 있어.”

고요하고 낮게, 형이 대답했다.

“3억 년 전, 고생대 데본기의 바다에 등뼈를 가진 물고기가 있었어. 인간은, 우리는 거기서 시작되었지.”

형이 머물고 있는 오두막은 넓고 허름했고, 부실한 벽 안에 갇힌 바람이 웅웅 소리를 내고 있었다.

“A에서 B까지 이르는 길이 멀수록 훌륭한 은유라고 하더군. 3억 년 전의 물고기에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이 정도면 충분히 먼 걸까?”

무한의 동굴 같은 형의 목소리에 압도되어 네가 어리둥절한 사이, 너의 몸속에서 웅웅 몰아치던 분노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우리는 그 거리를 좁히려고만 했지. 매일 아침, 집에서 학교까지 달리면서 넌 무얼 봤지?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뭘 보게 될 거 같아? 죽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

“형은… 여기서 뭘 보고 싶은 건데?”

네 질문에 형은 고개를 들고 창 너머 먼 하늘을 응시했다. 세계는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너의 등뼈가, 너의 생명이 시작된 그곳이 꿈틀거렸다. 푸드득, 보이지 않는 새들이 이를 데 없이 높은 하늘로 솟아올랐다.



성직자의 아동성범죄를 고발한 피해자들, ‘신의 은총으로’

전쟁과 기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각종 참사, 매일 뉴스를 가득 채우는 반인륜적 사건사고들을 보고 있노라면, ‘신’의 존재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 세상에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었을까. 악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며 선한 사람들을 돕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신의 역할 아닌가.

그러나 신과 세계, 인간과 신앙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 유신론자들은 신의 뜻이나 의지는 인간이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인간의 내면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 무한히 영적인 유기체라는 사실이 신의 존재를 말해준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그 자유의지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직자는 물론 성직자들조차 악한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모두에게 슬픈 일이다.

‘신의 은총으로’(감독 프랑수아 오종)는 프랑스 가톨릭 커뮤니티 안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다섯 아이를 둔 장년의 ‘알

렉상드르’(멜빌 푸포)는 어릴 적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프레나 신부가 아직도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한다. 바르바랭 추기경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수십 년 만에 프레나와 재회하게 된 그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린다. 프레나는 성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는 것은 병적인

것이라며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이제 알렉상드르는 바르바랭 추기경이 언제 프레나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다. 교회가 신부의 범죄를 묵인하고 덮어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피어오른 것이다. 알렉상드르가 언론사를 통해 이를 공론화시키자 그 동안 수면 밑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내민다.

영화는 알렉상드르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같은 일을 겪었던 ‘프랑수아’(드니 메노셰)로 초점이 옮겨지고, 다시 ‘질’(에릭 카라바카), ‘엠마누엘’(스완 아르라우드)로 확산된다. 마치 바톤 터치를 하듯 주인공이 바뀌는 듯 하다가 다시 그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으는 스토리텔링은 한 사람의 손짓이 어떻게 나비효과를 일으켜 회오리바람을 만들어 내는지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프레나의 성적 학대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 성적인 문제, 종교적 회의 등 다양한 고민을 꺼내고 살아야 했던 이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오랫동안 애써 감추고 살았던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주한다. 영화 중간 중간 삽입되는 스카우트 캠프 시절 피해자들의 얼굴에는 어린아이다운 미소도 장난기도 없다. 범죄에 억지로 연루된 사람처럼 프레나의 손길에 이끌리는 무표정한 아이들이 빼앗긴 것은 여름 캠프가 아니라 어찌면 인생 전부다.

피해자들은 ‘라 파롤 리베레’(‘해방된 목소리’라는 의미)라는 단체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단체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며 그들의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 노력하지만 수백 년 동안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교권에 대항하기는 쉽지 않다. 영화 ‘스포트라이트’(감독 토마스 맥카시, 2016)에서 보스턴 교구의 아동성범죄 사건을 폭로하려 했던 기자들이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던 것과 흡사하다. 무엇보다 공소시효가 걸림돌이다. 답답한 외부 상황과 별개로 ‘라 파롤 리베레’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긴다. 목표는 같지만 각기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마찰, 신앙에 대한 회의론, 할 만큼 했으니 한 발짝 물러서겠다는 선언들로 ‘라 파롤 리베레’는 위기를 맞는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동정적 시선으로 관객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대

신 이들의 일상과 분노, 단체 활동을 부각시킴으로써 보다 이성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려는 감독의 태도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지난 20년간 꾸준히 문제작들을 만들어왔던 프랑수아 오종 감독은 이 뜨거운 소재의 온도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가능한 한 차분하게 묘사하는데, 그의 지적인 접근법은 비슷한 소재의 다른 영화들과 이 작품을 차별화시킨다.

영화의 제목이자 후반부에 등장하는 ‘신의 은총으로 프레나 신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대사는 바르바랭 추기경이 실제로 2016년 8월 1일 루르드에서 열린 주교 회의에서 했던 말이다. 자리에 앉아 있던 기자들이 모두 개탄하며 ‘신의 은총으로’는 ‘다행히’라는 의미라고 지적한다. ‘신의 은총으로’는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말일까, 아니면 추기경의 진심일까. 어쨌든 바르바랭의 신도 자신의 은총이 그렇게 오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영화는 성직자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음에도 아직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알렉상드르의 가정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맺는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묻는다.

“아직도 신을 믿으세요?”

그것은 종교의 유무와 관계 없이 관객들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과 같다. 프랑스 교계의 치부를 들추던 오종은 여기서 살짝 선을 넘어 신학적 차원으로 나아간다. 교계의 타락이나 성직자들의 범죄와 믿음의 문제를 연결시킬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판단은 오로지 관객들의 몫이다.



위원 동정

중재위원 사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한 중재위원은 아래와 같다.

중재부	성명	재임 중 소속 직위	사퇴일자
서울제3중재부	이관해	(전)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2020. 1. 29.
제주중재부	문윤택	제주국제대 스마트미디어학과 교수	2020. 1. 13.

황용석 위원, <2019~2020 한국언론 세미나> 참석

황용석 위원(서울제3중재부,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1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언론 결산과 2020년 언론이 나아가갈 길'을 주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황 위원은 "언론사가 각 사의 상황에 맞는 윤리강령 가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언론중재

돌아보는 2019년, 어떤 기사들이 시정권고 결정을 받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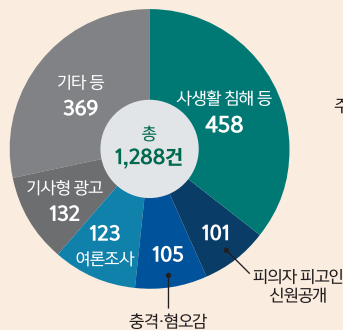
위원회 시정권고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위반한 1,288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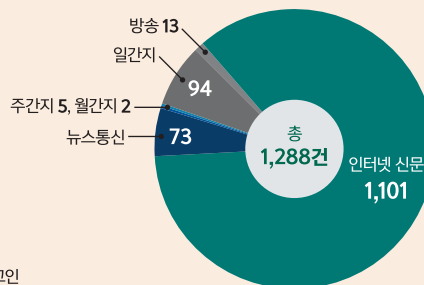
먼저 시정권고 심의기준 상의 법익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건수를 보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132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및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등의 주요 정보를 게재하지 않은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123건, 독자들에게 충격·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1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매체 유형에 따른 시정권고 건수를 보면,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1,1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94건 있었으며, 뉴스통신사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73건 있었습니다. 아울러 방송사, 주간지 및 월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각각 13건, 5건, 2건 있었습니다.

2019년도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건수



2019년도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건수



언론중재위원회는 2020년에도 시정권고제도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전한 언론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정한 선거보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0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기간



국회의원 선거
2019.12.16 ~ 2020.5.15

재·보궐 선거
2020.2.15 ~ 2020.5.15

●
신문, 잡지, 뉴스통신의
불공정기사에 대해
자체심의를 합니다.

●●
후보자(출마 예정자)는
불공정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후보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처리합니다.



항상 듣고 있을게요,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 곁에 언제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은 물론 포털뉴스까지 언론분쟁을 비용 없이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